스토리텔링 기획
템플스테이 & 피플 2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20년을 넘어섰다.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해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 그 일선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 자원봉사자에게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템플스테이로 맺어진 인연들에 감사할 뿐”

김태영
강화 전등사 템플스테이 담당 팀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범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영 팀장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템플스테이 운영을 총괄한 베테랑 실무자다.

2006년부터 전등사서만 실무
경험만큼 연속성 · 전문성 보장
“친절하다” 응원에 보람 느껴
“발전 위해선 질적 성장 필요”


템플스테이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만큼 무수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잊을만하면 새롭게 찾아오는 인연들이 반갑고 고마울 뿐이죠.”

무뚝뚝하게 내뱉은 한 마디에 그의 진심이 짙게 묻어났다. 김태영 강화 전등사 템플스테이 담당 팀장은 그야말로 베테랑 실무자다. 20년 가까운 세월 템플스테이 운영을 총괄했다. 프로그램 준비부터 공문 제작과 행정업무, 참가자 안내와 응대까지, 원활한 템플스테이를 위한 모든 과정에 그의 손길이 세심하게 닿아 있다. 오랜 세월만큼 충분히 익숙해진 일이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이 있기에 매순간 새로운 경험이다.

김 팀장이 전등사에서 템플스테이 실무를 맡은 것은 2005년부터다. 2002년 템플스테이가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시행 초창기부터 20여 년 가까이 한 사찰에서만 실무 경험을 쌓은 셈이다. 이는 전국 150여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예비 운영사찰 포함) 중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탄탄하게 축적된 경험 덕분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첫 인연은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의 권유에서 비롯됐다.

“당시 저는 전등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장윤 스님을 곁에서 보좌하는 수행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행정업무도 배워보라고 추천하셨죠. 종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템플스테이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였지만 평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스님 덕분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네요.”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찾는 참가자는 연간 3000~4000여 명. 그간 김 팀장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스친 인연은 몇만 명에 달한다. 무수한 만남 속에서 마주한 소중한 인연들은 이제 김 팀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다.

3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전등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탈북자 A씨는 “여전히 고향에는 갈 수 없지만 이제는 전등사가 있어 든든하다. 마치 고향의 친정처럼 느껴진다”며 아이처럼 웃었다. 마주한 밝은 모습에 김 팀장도 뭉클해진 마음으로 미소를 건넸다. 절로 환희심이 솟았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B씨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B씨의 긍정적인 변화에 김 팀장은 더욱 힘이 났다. “꼭 또 오겠다” “고생한다” “친절하다”는 참가자들의 응원에는 더없는 보람을 느낀다.

“갖가지 사연을 가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사찰을 찾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일상에 지쳐서, 또는 관광 중 우연히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하룻밤이 그들에게 ‘쉼’이 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걸로 제 역할을 다한 것 아닐까요.”

최근 김 팀장은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싱잉볼 테라피와 호흡명상, 하타요가 등 웰니스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찰림을 활용한 걷기 명상,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사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템플스테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허심탄회하게 내놨다. 김 팀장은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라며 “템플스테이에 대한 포럼 등을 확대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매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진행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정, 예약관리, 회계, 트렌드, 서비스 등을 익히고 있다.

“이왕 템플스테이와 인연을 맺었으니 할 수 있는 순간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템플스테이 실무자 1급 자격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실무경력 20년을 채우면 서류 · 면접을 통해 템플스테이 실무자 1급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2급인데 아직 1급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1급은 아무래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도 상징적이니까요. 먼 훗날 제가 퇴직하더라도 템플스테이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간 선배가 이곳에 있었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행복 인생 2막 템플 봉사로 열었죠”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단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조계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찰 탐방 1번지로 손꼽힌다. 북적이는 인파 속 높은 빌딩 숲을 지나 일주문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고즈넉하게 펼쳐진 특유의 공간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조계사를 1번지로 꼽는 이유는 바로 소통의 원활함이다. 낯선 문화를 향한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조계사 경내에 들어선 외국인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활기찬 목소리, 바로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Hello, Welcome Jogyesa Temple.”

밝은 미소로 건넨 인사 한 마디에 낯선 공간이 주는 어색함도 무장해제된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낯설음을 친근함으로 바꾸고, 한국불교를 향한 호기심까지 척척 해결해주는 이들. 10여 년간 봉사단을 이끌어 온 ‘템플스테이 화요일팀’ 관득행(70) 팀장과 묘련화(67) 총무, 정진행(67) 봉사자, 일도심(56) 봉사자다.

“재적사찰인 조계사에 도움이 되고자(관득행)” “그저 봉사가 좋아서(묘련화)” “불교를 친숙하고 쉽게 알리기 위해(정진행)” “불교에 의지해 번아웃(업무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피로가 극심한 상태)을 극복한 경험으로 퇴직 이후 봉사로 회향(일도심)” 등 각기 다른 이유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매주 화요일마다 조계사 경내를 누비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단이 정식으로 꾸려진 건 2005년이다. 연간 1만 명 이상 국내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조계사를 찾는 만큼 부족한 일손을 거들 인력이 절실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마음을 내준 덕분에 현재 2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요일에 따라 평일 3~4명, 주말 5~6명으로 나눠 오리엔테이션과 사찰 안내, 연꽃등 만들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화 · 수 · 목요일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돼 영어에 능숙한 봉사자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참가자들과 연꽃등을 만들고 있다.

요일마다 인력 나눠 활동 진행
서로 묻고 배우며 영어 공부도
외국어 · 대화 기술 등 교육 절실
‘하심’으로 한국불교 알리기 최선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외국인 참가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템플스테이 화요일팀도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탓에 모르는 건 서로에게 묻고 배우며 어떻게 불교 용어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 영어뿐만이 아니다. 한국불교와 문화유산에 깃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습득력이 느리다 보니 항상 공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거든요. 대화의 기술이나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봉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열정 덕분일까.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2주 전 조계사를 찾은 싱가폴 출신의 조부모, 손주 등 3대는 아시아 불교와 차이점을 짚어가며 한국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고, “조계사에서 평생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기를 남겼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예불과 도량석도 큰 인기다. 잠을 이겨내고 도량 곳곳을 거닐며 “비로소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참가자도 여럿이다.

“조계사를 찾는 외국인들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저희 봉사자들입니다. 사찰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한국의 불교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참가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심’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감정을 다잡곤 한다. 한국불교 일선에서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미소를 잃지 않는 매 순간이 봉사자들에겐 수행과도 같다.

굴곡진 삶에 ‘쉼’이 되는 템플스테이. 한국불교의 진가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은 그들에게 남겨진 제2의 인생이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넘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도, 지구도 모두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죠. 짧지만 강렬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김내영 기자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팀은 경내를 누비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진행 · 관득행 · 묘련화 · 일도심 봉사자.